

시장

Bill de Blasio (D)

안녕하세요. 빌 드블라시오입니다. 저는 맨해튼 바깥 보로에 사는 일하는 아버지이자 공립학교에 자식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부모입니다. 현재 뉴욕시 공익 대변인으로 재직 중이며 여러분의 시장이 되기 위해 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. 저는 평생을 진보적인 개혁자로서 공무에 전념해 왔으며 풀뿌리 조직가로 일해왔습니다. 클린턴 행정부에서 앤드루 쿠오모와 함께 일했고, 힐러리 클린턴의 첫 선거 캠페인을 이끌었으며, 우리 뉴욕시를 개혁하기 위해 지역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, 시의원 그리고 공익 대변인으로 봉사했습니다. 그 기간 동안 교사 수천 명이 해고되는 것을 막고 폐교 위기에 직면한 지역 학교들을 도왔으며; 악덕 건물주들에게 책임을 물었고; 9/11 이후 병든 응급처치요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도왔으며; 학대받고 방치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저는 시청이 쉽게 잊어버리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현재 우리는 “두 도시 이야기”가 묘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-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와중에 중산층 뉴욕커들은 어려움을 겪고 뉴욕시 주민 반 이상이 빈곤선 근처에서 맴도는 세상에서 말입니다. 12 년이나 지속된 블룸버그 시장의 긴 임기가 드디어 끝에 이른 지금, 우리는 월가, 대기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자들에게 고개 수기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. 우리는 시 전체, 다섯 개 보로 모두를 위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.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저는 20 만 채가량의 저렴한 주택을 짓고 보존하며, 기업 보조금으로 쓰였던 기금을 뉴욕시립대학 시스템에 투자하고, 검문 몸수색(Stop and Frisk)를 개혁해 유색인 청년들이 부당하고 근거 없는 수색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또 신규 사업체에 투자하고, 신흥 산업을 지원하며, 소규모 사업체를 파산 위기로 몰고 있는 지나친 벌금을 종식시키고, 교육제도를 세우는 데 있어 학부모의 목소리에 경청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하게는, 최고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해 프리-K 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정말로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기로 공약한 민주당 후보는 저뿐이 없습니다. 만약 당선된다면 제가 뉴욕시 역사상 공립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첫 번째 시장이 될 것이고,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자랑스롭습니다. 저는 내년 우리 뉴욕시를 새로운 진보의 길로 단호하게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- 그리고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.

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.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